

<하기 글은 2017년 7월 18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어느덧 반이 훌쩍 지나 가버린 2017년! 여러분은 연초에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는 「소통과 화합의 2017년」 만들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정기회의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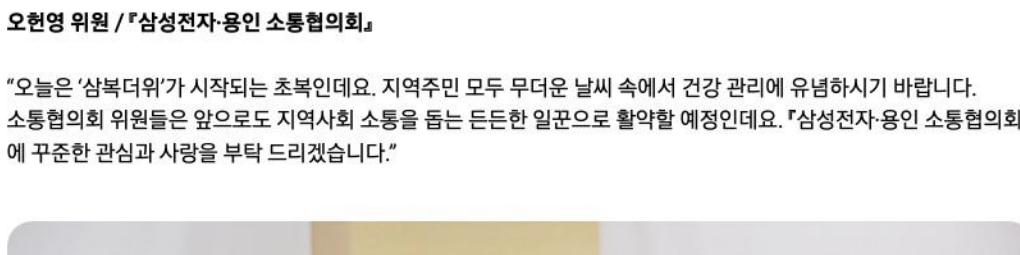
지난 7월 12일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다는 초복이었는데요.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띠며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4일, 평택캠퍼스 출하식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7월 정기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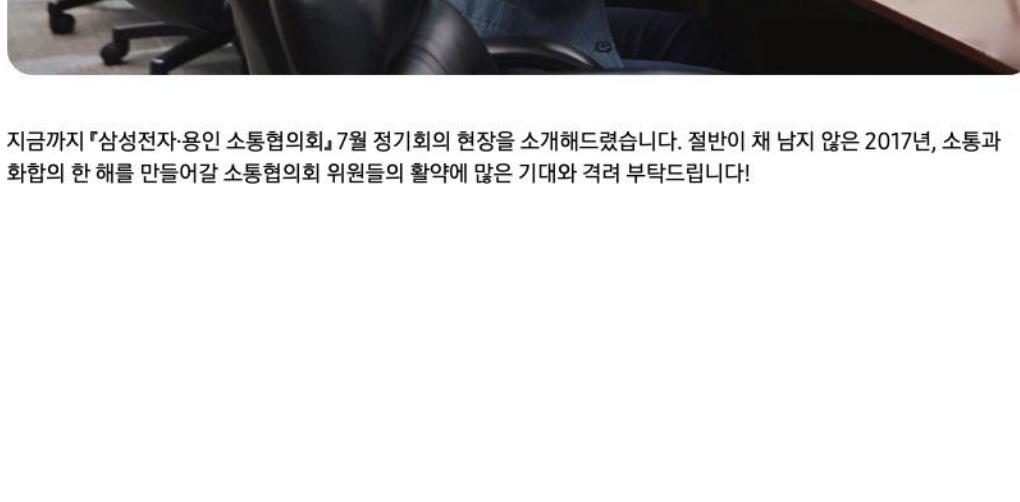
다음으로 지난 2개월간 민원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화성캠퍼스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야간 조명과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삼성전자는 체육시설에 소등타이머를 설치해 매일 오후 9시 30분에 조명을 일괄 소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평소 주민들의 지적이 많은 불법주차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편사항에 대해 삼성전자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배려하는 이웃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오는 8월에는 「용인/화성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환경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용인시와 화성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인데요. 7월 23일까지 소통블로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합니다.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7월 정기회의는 소통협의회 위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는데요. 서농동 오현영 위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인데요. 지역주민 모두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통을 돋는 든든한 일꾼으로 활약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에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7월 정기회의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절반이 채 남지 않은 2017년, 소통과 화합의 한 해를 만들어갈 소통협의회 위원들의 활약에 많은 기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